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 2024년도 제50호

**스포츠윤리센터...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직권 조사할 것**

**[단독] 욕설·폭언·협박 '가혹행위' 종합세트 KPGA,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초읽기'**

김민규 스포츠서울 기자

**"그냥 물러서면 모든 것 인정"**

**정부 탓, 자화자찬 40분...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화**

김창금 한겨레 기자

**대한체육회 예산 4,440억원...종목 단체 80여 개**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이 뭐길래?...권한↑·주목도↓**

이대건 YTN 기자

**사무용품산 것처럼 문서 허위작성해 집행 혐의...징계위 회부**

**'공금으로 휴대전화·의류 구매' 문체부 공무원 무더기 입건**

임순현 연합뉴스 기자

**전남도 출자출연기관 3곳 위반 사례 30건 적발**

**전남도체육회, 종목 단체 등급 심의 방치...제명 대상에 보조금**

형민우 연합뉴스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 보도자료



배 포 2024년 12월 20일(금)

보도일시 2024년 12월 20일(금)

전 화 02) 2279 - 8999

홈페이지 [www.sportscm.org](http://www.sportscm.org)

## 논평

### 정몽규 회장에게 묻는다. 축구는 누구의 것인가?

2024년 12월 19일, 서울 종로구 포니정재단에서 열린 대한축구협회 정몽규 현 회장의 제55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 기자회견은 세상과 단절된 한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집요한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는 일부 축구 집단의 권력욕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보여주기에 충분했다고 평가한다.

최근 벌어진 국내의 혼란한 시국을 틈타 슬그머니 발표한 출마 선언의 이면에는 어떤 속셈이 자리하고 있는가? 계엄과 내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또 어떤 욕망과 계산이 출마를 결심하게 한 것인가? 모든 축구인들이 아닌 그동안의 공고한 기득권 아래, 개인의 영달을 위해 충성하던 일부 몰지각한 축구인에 또다시 기대어 쓸데없는 용기를 낸 것인가? 그동안 발전한 한국 축구가 개인의 성취로 인한 사유물로 착각한 것인가?

전임 정몽준 회장부터 시작해 그와 현대가는 이미 오랜 기간 축구협회의 수장으로 재임하면서 한국 축구를 현대가의 여러 자회사 중 하나로 착각할 만큼 조직사유화의 전형을 보여주었다. 그로부터 비롯된 회장의 독단이 대한민국 축구발전에 얼마나 해가 되는 것인지 만천하에 보여주었다.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원칙 없는 감독 선임과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은 자취를 감춘 지 오래다. 선수 개개인의 희생과 땀방울로 만들어낸 대한민국 축구의 성취를 협회의 치적으로 치환하려는 뻔뻔함도 드러났다. 개혁의 대상이 되어야 할 장본인이 “과감한 개혁을 통한 축구협회 신뢰 회복”을 언급하는 내로남불은 식상한 레토릭이다.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도저히 실현해낼 수 없는 현 집행부가 내놓은 망상적 포부에 다시 속을 국민은 없다. 만에 하나 재선하게 되더라도 그 즉시 그의 리더십은 개혁의 대상이 될 뿐, 국민들의 환영과 신뢰는 기대조차 어려울 것이다. 12년간의 축구협회장 정몽규, 그가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은 회장 출마가 아니라 축구계를 영원히 떠나는 것이다.

2024. 12. 20.

체육시민연대

문서 : 2024-12-20

수신 : 한국프로골프협회      **KPGA 직장 내 괴롭힘 사건 관련 대처 및 방지 대책 촉구**

발신 : 체육시민연대

귀 단체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체육시민연대는 국내 스포츠 분야 최초의 NGO단체로서 2002년부터 스포츠계 투명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KPGA 내에서 발생한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과 명백한 가혹행위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사건 보도 이후 현재까지도 홈페이지나 언론을 통한 사과문 게재도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귀 단체의 깊은 반성과 자정을 촉구하며, 아래와 같은 요구사항을 전달하고자 하고자 합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처리의 전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요구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시, 성명문 발표, 기자회견, 정부, 국회 및 구제기관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처벌 촉구 등의 활동을 비롯한 체육계 정의구현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래>

피해자와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분리조치와 2차 피해 방지책을 포함한 보호조치 시행

가해자에 대한 즉각적인 직무정지와 철저한 진상규명과 처벌

이번 사건에 대한 대표자의 책임 있는 행동

KPGA 차원에서의 피해방지 대책 수립과 시행

언론 및 홈페이지 등에 즉각적인 사과문 게재

2024. 12. 20

체육시민연대

# [단독] 욕설 폭언 협박 '가혹행위' 종합세트 KPGA, 스포츠윤리센터 조사 '초읽기'

“스포츠윤리센터가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하고 직권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스포츠윤리센터(윤리센터)가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고위 임원의 욕설·욕설·협박 등 가혹행위에 대해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으로 논란이 커지자, 윤리센터가 이례적으로 선제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GA 노동조합은 19일 KPGA의 고위 임원이 사무국 직원에게 지속적인 욕설·폭언·협박·강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KPGA 고위 임원이 피해 직원 A씨를 상대로 극심한 욕설과 폭언, 막말 등을 일삼았다. 피해직원의 아내와 자녀, 부모 등 가족까지 모욕했다. 살해협박도 일삼았다”며 “괴롭힘을 넘어 범죄 행위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비난했다.

피해직원 A는 ‘극단적 선택’ 지경까지 이르자,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렸다. A씨는 “정말 어떻게 버텼는지 모르겠다. 일상이 된 폭언과 욕설에 버티고 버텼는데 진짜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다.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두렵지만 더이상 버틸 수가 없어 용기를 냈다”며 “너무 힘들어 병원에서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직장내 갑질논란 등으로 파업에 나선 KPGA 직원들. 사진 | KPGA

이 같은 ‘가혹행위’ 논란이 불거지자 윤리센터가 움직였다. 윤리센터는 내부 보고를 마친 후 KPGA에 관련 조사 공문을 보낼 것으로 파악됐다.

KPGA 측은 22일 스포츠서울에 “스포츠윤리센터 연락을 받았다. 심각한 사안임을 인지한 것인지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이라 했다”며 “협회에 가혹행위를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진척이 되지 않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례적으로 먼저 나선 것 같다”고 귀띔했다.

윤리센터는 스포츠 인권침해, 비리 등에 대해 조사해 가해자 처벌 현실화, 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한 심리·정서·법률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이다. 인권침해, 비리 등이 신고·접수되면 조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이번 KPGA 가혹행위 사태는 선제적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라는 의미다.

피해직원 A는 “공정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축소 하거나 가볍게 보지 말고, 잘못이 있다면 잘못에 따른 명확한 처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일을 통해 더이상 나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KPGA뿐만 아니라 체육계 전반에 긍정적이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형성됐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골프는 ‘매너’를 중시하며 높은 윤리 기준을 요구하는 대표 스포츠다. 그런데 정작 골프 선수 연합체인 KPGA의 ‘윤리 의식’은 그 기준에 한참 못 미치는 듯하다. 가뜩이나 ‘귀족 스포츠’ ‘비리의 온상’ 등 부정적 이미지가 강한 골프업계다. KPGA는 여전히 회원(선수)들의 단체라는 그들만의 특권 의식에 사로잡혀있다. 가해 임원 역시 선수 출신이다.

“사무국 직원들은 회원 단체에 봉사하는 노예가 아니다. 엄연히 직장이고 삶의 터전임을 알아줬으면...”이란 피해직원 A의 눈물 짙은 호소가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이유다.

자료 출처: <https://www.sportsseoul.com/news/read/1485250?ref=naver>

# 정부 탓, 자화자찬 40분... 이기흥 체육회장 3선 도전 공식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자신을 옥죄는 수사·감사 기관의 조사에 대해서는 무관함을 강조했다.

이기흥 회장은 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1월 14일 예정된 제42대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2016년 통합체육회 선거를 통해 수장에 올랐고, 이번에 회장직 3선을 노린다.

하지만 이 회장은 체육회의 관리·감독 기구인 문화체육관광부와 대립하고 있고, 각종 비리 혐의로 경찰, 검찰, 감사원의 조사를 받고 있다. 특히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업무방해와 금품 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을 비롯해 8명을 수사 의뢰했고, 문체부는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검찰과 경찰 등이 대한체육회와 진천 선수촌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 보도자료에서 '대한민국 체육의 변화, 체육인과 완성하겠습니다'라는 슬로건과 독립(Independence), 최적화(Optimization), 협력(Collaboration)의 키워드를 제시했다. 재정 자립과 운영의 자율성, 학교 체육 정상화와 생활-전문 체육의 균형 발전과 완성, 투명한 조직을 이뤄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정작 기자회견에서는 향후 비전보다는 현재 진행 중인 사정기관의 각종 수사, 조사에 대한 자신의 억울함을 해명하고, 8년간 이룬 성과에 대한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이 회장은 "각종 의혹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저도 의심스럽다. 우리말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 (정부가) 물러설 립이 없이 코너로 몰고 있다"며 당국에 대한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채용비리 의혹이나 용품 사적 이용 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반박했다.

이 회장은 최근 한 미디어와 인터뷰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내정한 차기 체육회장 후보가 따로 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했다. 이 부분에 대해 기자가 "고위 관계자와 만났지만, 그 사람의 의견을 '정부의 내정'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을 하자, 이 회장은 "그분들께서는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됐다"라는 식으로 말을 바꿨다.

이 회장은 24~25일 후보 등록을 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는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장, 박창범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장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반 이기흥' 연대를 위해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

# '체육 대통령' 대한체육회장이 뭐길래?...

## 권한 ↑ · 주목도 ↓

[앵커]

그 어느 때보다 더 주목받는 대한체육회장은 '체육 대통령'으로 불릴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 평소에는 주목을 덜 받는 자리라 이번에 유독 회장 선거 후보 난립까지 벌어집니다.

이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무려 4,400억 원.

종목 단체 80여 곳을 이끄는 대한체육회 한 해 예산 규모입니다.

대한체육회장 권한도 막강합니다.

이기흥 회장처럼 국가올림픽위원회 대표 자격이 되면 IOC 위원으로 선출될 수 있습니다.

국민급 대우를 받다 보니 의전상 특혜도 대단합니다.

해외 입국 비자가 필요 없고 IOC 총회 참석 때는 차량과 통역·의전 요원이 지원될 정도입니다.

이러다 보니 권한 남용 의혹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강유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월 국정감사) : 하루에 1억씩 드는 (파리올림픽) 코리아 하우스 운영과 (특정) 회사 일감 몰아주기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이기흥 / 대한체육회장 (지난 10월 국정감사) :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마 직원들이 단가라든지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과 경찰 양쪽 모두에서 수사받는 이기흥 회장은 3연임 도전 선언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7명이 출마 의지를 밝힌 터라 이기흥 회장까지 더해지면 후보 난립 자체도 이례적입니다.

이기흥 체제를 반드시 막겠다며 일부 후보들이 단일화를 논의하는 건 '여의도 정치'를 방불케 합니다.

[유승민 / 전 대한탁구협회장 : 국민과 체육인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방식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제42대 대한체육회장 선거는 내년 1월 14일인데 권한은 막강하지만,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자리라 너도나도 뛰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이대건입니다.



# '공금으로 휴대전화 · 의류 구매' 문체부 공무원 무더기 입건

공금으로 휴대전화와 의류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입건됐다.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체부 A팀 소속 공무원 3명은 최근 업무에 필요하다고 속여 공금으로 개인용 휴대전화를 구매한 뒤 사무용품 등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했다는 혐의(업무상 횡령·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로 경찰에 고발되고 징계에 회부됐다.

이들은 또 같은 팀 소속 공무원 3명과 함께 동절기 근무복 명목으로 개인용 의류를 구매한 뒤 행사에 쓰일 사무用品을 구매한 것처럼 문서를 허위 작성해 집행한 혐의로도 징계위에 회부됐다.

이들 중 팀장급인 공무원 B씨는 부하직원에게 퇴사를 강요하고 폭언과 반말을 했다는 징계 혐의도 있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은 국무조정실로부터 A팀에 대한 비위 의혹을 통보받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이 같은 징계 혐의를 확인했다.

감사담당관은 이미 경찰에 입건된 B씨 등 휴대전화를 구매한 3명에게는 중징계, 나머지 공무원들에게는 경징계 조치하라고 징계위원회에 통보했다.

# 전남도체육회, 종목 단체 등급 심의 방치... 제명 대상에 보조금

출연기관 감사에서 불공정한 채용 등 부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23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남도체육회, 전남사회서비스원, 전남국제농업박람회 등 출자출연기관 3곳을 대상으로 인사·조직 운영 등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한 결과 3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감사관은 감사 결과에 따라 경징계 1명, 훈계 9명 등 신분상 조치를 요구하고 주의 15건, 개선 2건, 통보 2건 등 행정상 처분도 내렸다.

도체육회는 72개 종목단체에 대해 2016년 회원 가입 후 단 한 차례도 등급 심의를 하지 않았다.

전체 종목 단체 가운데 28개는 등급 강등(20개) 또는 제명 대상(8개)에 해당하는데도 등급 심사 없이 방치했다.

제명 대상 중 6개 단체에는 올 상반기에만 행정 보조비 1천140만 원을 부당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도체육회는 또 지난해 신규 채용 과정에서 규정상 5개 평가 항목 모두 심사위원 과반이 '상'으로 평정한 경우 '우수' 등급으로 합격 결정을 해야 하는데도 4개 항목만 '상'으로 평가받은 특정인을 합격 처리했다.

감사관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전 업무 담당자에 대해 경징계 요구했다.

원천징수 의무를 부적절하게 이행한 전 업무 담당자와 협상에 의한 계약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각각 훈계를 요구했다.

사회서비스원은 사전 의결이 필요한 위수탁 협약 등 절차를 마치고 나서야 뒤늦게 기존 종사자 60명에 대한 고용 승계 건을 인사위원회 서면 심의와 의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주의 처분을 받았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용역 16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평가위원 명단을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하지 않아 관련자들이 훈계 처분을 받았다.



# 주간 스포츠 소식

서군산체육센터 완공...26일부터 수영장 무료 시범운영

<https://www.news1.kr/local/jeonbuk/5639914>

제주 체육경기장 대대적 정비...2026년 전국체전 대비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7251](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7251)

용산구, 이태원초등학교 수영장을 공공체육시설로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3080500004?input=1195m>

유아풀서 미생물 3마리 발견, 진해체육센터 수질관리 구멍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2\\_0003006389](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2_0003006389)

'반 이기흥' 체육회장 후보들 2차 회동..."25일까지 단일화 최선"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229477>

진주시, 내년부터 두자녀 이상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6590](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23_0003006590)

'2024서울시 체육인의 밤' 성황리 개최

<https://edu.donga.com/news/articleView.html?idxno=79424>

5일 만에 대학체육관이 프로배구장으로...KB손보 급한 불 끄다

<https://www.yna.co.kr/view/AKR20241222028100007?input=1195m>

대전시체육회, 꿈꾸는 펜싱학교 남·여 종목별 동호인대회 개최

<https://www.news1.kr/local/daejeon-chungnam/5640317>

#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